

# 혁신도시 토지 등기업무 대행 나주지역 법무사 배제 논란

### “광주 법무사 독식” 반발... 토공측선 “기존 거래처 선정”

혁신도시 토지 보상과 관련한 토지 등기업무 대행에 나주지역 법무사들이 배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 혁신도시내 편입부지 670여 만㎡에 대한 토지 보상업무는 한국토지공사 총괄 시행사로 전남개발공사와 광주도시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6천600여필지의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업무가 광주에 주소를 둔 법무사들에게 맡겨져 나주지역 법무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전체 편입부지 가운데 43.1%를 개발할 예정인 토지공사는 등기 이전 업무를 광주에 있는 4개 법무사를 대행사로 선정했다.

토지공사는 나주지역 법무사들이 반발하자 4개 중 1곳의 등기 업무 대행사를 나주 관내 A모 법무사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A모법무사의 경우 전남개발공사 측 대행사로도 선임 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나주지역 한 법무사는 “대규모 등기 업무에 지역 법무사들이 배제되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특정인이 동시에 등기 대행사로 선정돼 로비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에 의한 토지보상 업무 성격상 기존에 거래했던 법무사를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혁신도시 토지 이전등기 업무의 경우 1건당 수수료가 4만2천400원으로 줄잡아 총 2억 7천900만원 상당의 법무사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메밀꽃밭으로 가을 여행을...

장흥군 회진면 선학동 마을 주변 3만여 평이 메밀꽃밭으로 변신했다. 이곳은 소설가 이청준의 단편소설 '선학동 나그네'의 무대이자 이를 원작으로 해서 만든 임권택 감독의 100번째 영화 '천년학'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주민들은 올해 경관보전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유채와 메밀을 심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함평군이 내년 4월18일로 예정된 '2008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국제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직원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함평군은 외국어 능력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내년 4월까지 전체 직원의 20%인 100여 명이 1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는 전문 통역수준의 인재로 육성할 계획이다.

함평군은 지난 98년부터 원어민 강사를 초빙, 영어·일어·중국어 등을 수준에 맞춰 교육하고 우수자를

## 함평 세계엑스포 앞두고 郡 공무원이 통역 맡는다

### 직원 10여명 통역 가능 수준의 외국어 실력 갖춰

선발해 해외교류 파견 및 어학연수를 실시해 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현재 직원 중 영어와 일어, 중국어, 독일어 등 외국어 구사 능력자는 39명으로 이

800여명이 참석한 연차회의에서 사례발표와 지난달 27일 일본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교류회의에서 직원들이 직접 통역을 맡았다.

또 외국어 우수 직원은 (재)함평 세계 나비·곤충 엑스포 조직위원회에 파견돼 해외 홍보활동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함평군은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직원을 초청인사 안내 및 외국인 관광객 가이드로 배치할 예정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 대불산단 내달부터 LNG 공사

### 64억 투입 공급관 매설

영암 대불산단단지내 액화 천연가스(LNG) 공급을 위한 공사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전국 35개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유일하게 천연가스가 공급되지 않았던 대불산단단지는 천연가스 공급 배관

망 인입공사가 완료되는 올 연말부터 LNG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공사는 LNG 공급업체인 목포 도시가스㈜가 64억 원을 투입, 목포 지방해양수산청 사거리에서 영암군 전곡 35개 국가산업단지까지 3.4km에 500mm 공급관을 매설한다.

천연가스가 공급되면 병커 C유를

사용해온 28개 입주업체의 연료비 중 45억 원이 절감되고 환경오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1차로 올 연말부터 대불산단 내 외국인 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등에 LNG가 공급되며 2011년까지 대불산단과 삼호지방산단 등 삼호읍 전역으로 확대된다.

/영암=김남기기자 hnkim@



## 농협곡성군지부 조손가정에 '사랑의 햅쌀' 전달

농협중앙회 곡성군지부(지부장 한재식)가 지난 22일 나농경영의 일환으로 (사)한국 BBS 곡성군지부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조손가정 23세대에 햅쌀 10kg 46포를 전달했다. <사진>

삼강원에 쌀과 생필품을 전달했고 농촌지역 독거노인 10명에게 쇠고기 2.4kg(국거리, 불고기, 국갈비 각 800g)을 보내는 등 훈훈한 정을 나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곡성군지부는 또 관내 복지시설인

## 곡성 목화축제 열린다

### 29~30일 겸면... 솟타기 체험도

오는 29·30일 이틀간 곡성군 겸면 칠봉리 목화공원 일대에서 '제 6회 겸면 목화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겸면 목화축제는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고 전국에서도 드물게 목화를 주제로 하는 데다 전국 최대 규모인 1만 5천㎡에 목화가 만발해 특이한 경치를 느낄 수 있어 이색 축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축제의 최고 볼거리는 목화종자 파종부터 재배·생산·솟타기 등 목화가 웃감으로 되기가

지의 과정을 한눈에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목화 전시체험관이다.

이 체험관에서는 목화 솟타기 시연 관람과 함께 관광객도 솟을 직접 타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또 6km 길이의 겸면천 생태체험 코스 탐사, 소달구지 타보기, 겸면천에서 민물고기 잡기, 심청마당극, 난타 공연, 관광객 노래자랑 대회,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이 밖에도 목화씨와 목화솜 판매 등 부대 행사도 열린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 영광에 대규모 종합체육시설

### 郡, 450억 들여 천연잔디 축구장 등 조성

영광군에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이 문을 연다. <사진>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영광읍 단주리에 공사 중인 영광 종합체육시설 공사가 완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



영광 종합체육시설내 종합운동장은 2만8천㎡ 부지에 1만4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추고 천연잔디가 깔려 있어 축구 및 각종 육상 경기가 가능하다.

또 관중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관과 1만5천여㎡ 규모의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씨름장도 함께 건립된다.

이 밖에 분수대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광장, 길거리 농구대,

체육공원 등 시민 편의 체육시설이 들어서며 1천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설치됐다.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다음 달말 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 중 준공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체육시설 개소에 발맞춰 대대적인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기상특보 알려 줍니다"

### 유무선 재난방송 통보시스템 담양군 읍·면사무소 등 설치

담양군이 최근 유·무선 자동 재난 음성방송 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군비 3천만 원을 들여 구축한 이 시스템은 각종 기상특보와 전방을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통보 받아 읍·면에 설치된 재난음성방송 시설을 통해 군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특히 출장 등으로 인해 담양 공무원이 부재중 일 때에도 휴대전화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어 재난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12개 읍·면사무소와 재해 취약지역 남면과 용면 등 2개 면의 모든 마을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나머지 10개 읍·면의 전체 마을에도 연차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할 방침이다.

/담양=차재희기자 jhwah@

**홍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전문점

100% Made in Italy 엔틱, 클래식, 쿼치소파

www.hongspace.com

광주광역시 동구 칠봉로1리(구교동) 11번길 11호 052)226-7567

**TEMPIA**

쌀수룩돈 버는 냉·난방기 부담 없이 구입하세요

600평 공장의 난방비를 8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절감한 신기술

1/3로 줄었다

냉장수행 예약판매 무상 지원금 혜택

40평-200평까지 무상지원

한국은행에서 보증

02-955-8222, 080-701-7117